권을 형성한 고대 한민족은 고조선 및 부여夫餘국을 비롯,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및 고대 일본에 이르기까지 동일계 민족에 의해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권교수는 ‘요서지방 일원의 홍산문화권에 바탕을 둔 석층문화는 고인돌과 적석총이 집중된 요동지방과 아울러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분포된 고인돌과 적석총、석관묘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서 ‘북아시아권의 독자적인 샤머니즘이 홍산문화권을 중심으로 수용되고 청동기 시대 이후 점차 한반도에 전파돼 고대 한민족의 민속문화로 정착된 것 이라고 밝혔다.

■홍산문화 : 약 7~8천년 전 중국 신석기시대 후기의 문화로 주로 랴오닝遼寧성 서부 일대에 분포한다. 이 문화는 경제적인 면에서 농사와 목축의 중간 시대에 속한다. 갈아 만든 돌보습이나 돌칼 뿐만 아니라 깎는 도구, 가는 도구, 자르는 도구 등의 신석기 시대 유품도 있어 당시 거주족에게 농업과 함께 수렵과 목축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추밀공파 정헌공、탄옹계 시조후 35세로서 조선 중후기 영조조英祖朝의 명신 유회당有懷堂(26世 이진以鎭, 좌참찬 공민공恭敏公)의 종손으로 현재 충남대 명예교수이자 대전시 탄방동 소재 도산서원道山書院 부설 도산학술연구원장으로 있는 필자는 충남대에서 백제시대사 연구에 큰 업적을 쌓은 바 있는데, 은퇴 후의 만년에 이르러 북방 만주와 요하 지역의 상고사 연구에 정진하면서 중국의 관계 학술회의 등에도 학술발표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여 싣는 논문은 권태원 교수의 그와 같은 학술적 업적의 하나인데 그 길이와 지면 관계로 한번에 다 소화하지 못해 2,3회로 분재하기로 한다. 또한 각주와 부속 지도 등 아까운 부속 자료를 부득이 생략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해량을 바란다.

한편 권태원 교수는 ‘한서漢書 의 열전列傳 ‘곽광)光、김일제金日 전’ 등에서 한국에 도래한 신라와 가락 왕실 김씨의 원류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권씨의 선원先源과도 관계가 있는 분야이어서 관심과 기대가 큰만큼 기회를 보아 이에 대한 기고도 받아 소개할 것을 예고한다.

1. 머리말

일찍이 세계문명권의 발원은 대하천의 정기적 범람과 비옥한 땅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충적평원의 형성과 더불어 초기 농경생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난날 만주대륙으로 불리던 중국의 동북 평원은 중국 대륙 최대 평원의 하나로 송화강松花江、눈강嫩江 유역을 차지하는 북부는 송눈평원松嫩平原이라 하고 요하 유역을 차지하는 남부는 요하평원遼河平原이라 한다. 한편 송화강과 요하를 잇는 지대를 송료松遼평원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평원의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 지역은 비옥한 흑토黑土로 덮였고 남부는 갈색 토층이 분포되어 있어 일찍부터 농경지가 형성되어 조粟를 비롯하여 수수、콩、밀 등의 밭농사가 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한편 서요하西遼河 또는 시라믄강 및 라오허老哈河 일대는 중원지방의 신석기시대와 동일한 8천년 전 무렵에 초기 농경생활과 더불어 목축과 수렵을 위주로 하는 북방 초원문화의 특징을 지닌 홍산문화권紅山文化圈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문화권은 이른 시기부터 황하유역의 앙소문화仰韶文化圈과 더불어 산동山東지방의 대문구大汶口문화 및 용산龍山문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고인돌을 비롯하여 적석석관묘積石石棺墓 등 여러 종류의 석총石塚 문화와 병행하여 초기 청동기 문화권이 형성된 고조선 문화권에도 적지 않은 문화적 영향을 끼침과 더불어 일찍부터 동일문화 권역에 포함이 되고 있다.

근간 각국은 자국의 역사를 비롯하여 보편적인 역사연구의 방법에 학제적學際的 또는 문화인류학적 방법을 수용하고 있다. 더욱이 문헌자료의 전승이 영세한 고대사 분야는 특히 그러하다. 한민족의 문화는 단지 삼국三國에 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대에 중국 동북지방의 중심 평원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예맥濊貊 및 고조선과 더불어 그들의 기층 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한반도의 가야伽倻를 포함한 삼국의 역사와 문화가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난날 고대사회로부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기본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문화공동체로서의 고대 한민족의 생활 문화권으로 알려진 중국 동북지방에서 한반도에 걸쳐 이루어졌던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고대 한민족의 역사、문화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원, 발전한 것으로 알려진 예맥문화권의 형성 관계

둘째, 한때 고조선의 강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요동遼東을 중심으로 한 석총문화가 근간 중원의 신석기시대와 같은 시대로 밝혀지고 요동과 동일한 문화권으로서의 제반요소가 갖추어진 홍산紅山문화권과의 관계

셋째, 일찍부터 알타이어계에서 독립한 독자적인 언어집단으로 발전하였다는 우리의 옛말과, 상형문자를 쓴 언어구조상 표음문자계의 우리말과는 차이가 인정되는 그들의 한자문화권과의 관계 비교 검토

2. 고대 한민족과 중국 동북지방

우리나라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말의 발원이, 첫째 원시 부여어夫餘語(부여、고구려、백제) 혹은 예맥어濊貊語가 있고, 둘째 원시 한어韓語(신라、삼한)가 있다고 하였다.(이기문李基文、김방한金芳漢、도수희都守熙 등) 선사시대에는 각 종족이 인접한 이웃의 선진 문화권에 영향을 받아 그와 동일한 문화권역에 속하게 되고, 따라서 종족상 미분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난날 선각의 언어학계의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민족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선사시대 각민족의 강역이 분명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남아 있는 옛 지명학 등을 통하여 불확실한 고대민족의 분포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고대사회의 ‘민족’을 칭할 때 기본적으로 동일 언어의 사용을 비롯한 ‘문화공동체’의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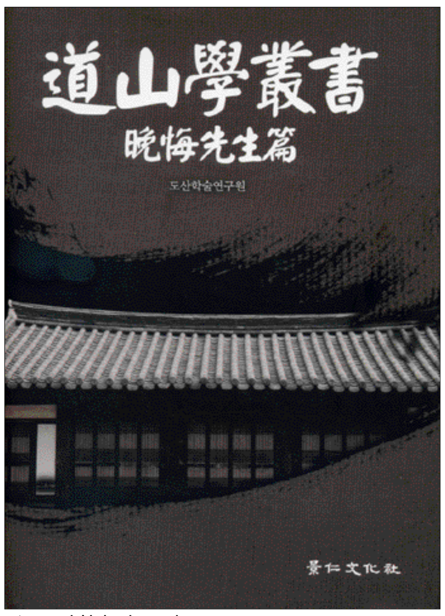
결국 고대 한민족은, 첫째로, 일찍이 중국 동북지방의 만주대평원에서 발원한 예맥계濊貊系 부여、고구려、백제 등이 있고, 다음으로 한계韓系 삼한 및 신라와, 국내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삼한설北三韓說과 더불어, 요동에서 한반도 서북지방에 자리잡은 고조선의 준準왕이 마한땅으로 망명하여 한왕韓王이라 하면서 고조선땅에 남은 그 후손이 한성韓姓을 썼으며, 또한 고조선 사회의 팔조법금八條法禁이 예濊땅에서 시행되었던 사실과 아울러, 고조선의 족단 구성이 예족과 더불어 한씨성을 칭한 한민족에 속했던 것이었음이 시사되기도 한다.

중국의 춘추시대 제齊나라 환공桓公(기원전 685~643의 시대 명신 관중管仲이 지었던

16면으로 계속

도산학총서 ‘만회선생편’ 발간

대전 도산서원의 도산학술연구원에서



▲ 도산학총서 표지

대전시 서구 탄방동 소재 도산서원道山書院 부설 도산학술연구원(원장 권태원權兌遠)에서는 6월 30일 도산학술총서叢書로서 ‘만회선생편晩悔先生篇’을 발간하였다. 신국판 총 437면 양장본으로서 발행처는 서울 경인景仁문화사, 집필자는 이우성李佑成(성균관대 명예교수)、유정동柳正東(전 성균관대 교수)、보근지步近智(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유명종劉明鍾(원광대 교수)、신동호申東浩(충남대 명예교수)、김길락金吉洛(충남대 명예교수)、전재동全在東(경북대 연구교수)、한기범韓基範(한남대 교수)、조종업趙鍾業(충남대 교수)、김태영金泰永(경희대 명예교수)、이해준李海濬(공주대 교수)이다.

도산서원은 조선 광해군 때의 절신節臣 만회晩悔 권득기權得己(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23세) 선생과 그 5자로서 효종、현종조의 명신인 탄옹炭翁 권시權외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고 이 서원에서 선현을 추모하는 정신을 기려 설립한 것이 도산학술연구원이다. 동 총서의 발간사에서 권태원 학술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 시대 지방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본 도산서원의 뜻을 받들어 1992년 도산학술연구원이 창립되었고 이어 국내외 학계 석학교수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도산학보’가 창간되었으며, 제6집부터(1997) 정부 공인의 학술지로 승격되고, 이어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어 왔다. 이에 금번 ‘도산학보’ 논집에 실린 옥고를 바탕으로 본 도산서원에 제향되고 있는 만회 권득기 선생과 탄옹 권시 선생을 중심으로, 이 분들의 뜻을 이어 오신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선생 등의 학덕과 사상에 관한 논고를 모아 각기 연구 단행본으로 출간을 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만회 선생이 자손에게 전한 십자훈十字訓인 ‘구시求是’의 정신과 더불어 ‘논어、맹자、근사록近思錄’ 등 경서를 중심으로 참의僭疑의 뜻을 전하시어 비록 주자朱子 성리학을 정통으로 택한 사문학斯文學과는 병행이 되고 있으나 학술문화 발전에 변함없는 공존의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 학문과 사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듯이 시비는 천하의 공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곧 실학에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날 근대화로 향하는 적지 않은 힘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과학 문화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나 사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본 총서의 발간 역시 이에 부연의 뜻으로 병행하기를 바라고자 한다.

내용은 모두가 6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가 도학道學(역사적 위상)으로서 이우성 교수의 ‘17세기의 정치적 상황과 만회、탄옹의 역사적 위상’, 유정동 교수의 ‘만회 권득기 선생의 생애와 사상’, 보근지 교수의 ‘논도산지학論道山之學’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철학(경학經學)으로서 유명종 교수의 ‘만회 권득기 선생의 이기理氣철학’, 신동호 교수의 ‘권만회의 이일원론理一元論적 철학체계’, 김길락 교수의 ‘권득기의 육왕학陸王學적 심학心學 체계’, 임형택 교수의 ‘만회 경학經學의 여구’, 전재동 교수의 ‘16세기 중반-17세기초의 논어論語 주석과 만회 권득기의 논어참의論語僭疑’가 실렸고, 제3부 예학에는 한기범 교수의 ‘만회의 예서와 예사상’이, 제4부 문학에는 조종업 교수의 ‘만회 문학의 연구’가, 제5부 정치에는 김태영 교수의 ‘만회、탄옹의 왕도王道정치론’이, 제6부 가계家系、분재기分財記에는 이해준 교수의 ‘만회 권득기가權得己家 분재기 연구’가 실려 있다.

값은 3만1천 원, 연락처는 경인문화사가 02) 718-4831, 도산학술연구원이 042) 483-6881이다.